

한은·네이버 맞손, 자체구축 AI 나왔다...이창용 "韓 AI 생태계 발전 이정표 될 것"

입력 2026.01.21. 오후 1:30 수정 2026.01.21. 오후 3:03

'금융·경제 특화 소버린 AI, 복키(BOKI)' 출시
한은 데이터와 AI 연계, 금융경제 데이터 분석 등 제공
"소버린 AI·망개선 동시 추진, 韓 AI 산업 활성화 계기"

"소버린 AI 육성과 망 개선 첫 성공 사례로, 공공부문 전반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 가운데)가 2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한국은행·네이버 공동 AX 콘퍼런스'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과 네이버(NAVER)가 민관협력을 통해 '금융·경제 특화 소버린 인공지능(AI), 복키(BOKI·Bank Of Korea Intelligence)'를 자체 구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이를 기념해 열린 '한국은행·네이버 공동 AX 콘퍼런스' 환영사

에서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AI 혁신 확산과 AI 생태계 발전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키는 한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인 소버린 AI다. 데이터 보안이 확보된 한은 내부망(on-premise)에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모형(하이퍼클로바엑스)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글로벌 중앙은행 가운데 최초 시도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거대언어모델(LLM)을 제공하고, 한은은 금융·경제에 특화된 AI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버전에서는 ▲조사연구 ▲법규 및 규정 확인 ▲개인 문서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용 챗봇 ▲금융경제 특화 번역 ▲한은 데이터와 AI를 연계한 금융경제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은은 소버린 AI와 망 개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복키 자체 구축을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의 모범 사례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날 이 총재는 한은 AI 도입이 다른 중앙은행과 구별되는 두 가지 열쇳말로 '소버린 AI' 구축과 '망 분리' 개선을 꼽았다. 이 총재는 "AI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나가는 것은 산업 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우리 금융·경제의 역사와 제도, 문화적 특수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소버린AI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한은이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협력해 AI를 개발한 것은 민관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AI 산업을 한 단계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망 분리 개선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소버린 AI 구축과 망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최초의 기관이기도 하다. 망 분리는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망과 인터넷을 활용하는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데이터 유출과 외부 해킹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특수성과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을 고려할 때, 공공·금융 부문에서 망 분리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으나, AI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연산 자원의 활용과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수적"이라며 "이제는 AI 활용과 기존의 망 분리 정책은 더는 양립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기에 망 분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오는 3월 망 분리 개선이 완료되면, 한은 AI의 활용 범위와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은은 AI 도입을 준비하면서 내부 문서 약 140만건을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준화했다. 앞으로 지식 자산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공유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총재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직원 간 정보 접근성과 활용 역량의 격차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한국은행·네이버 공동 AX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날 AX 컨퍼런스에서는 이 총재의 환영사에 이어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개회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의 기조연설 등이 이어졌다. 이 의장은 "한은의 방대한 데이터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중대한 전략 자산이란 공감대 아래 기술의 속도뿐만 아니라 신뢰와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AI 시대에 기관과 기업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종적인 곳과 성공적인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연한 DNA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번 협력이 한은은 물론 국가의 금융 인텔리전스를 한 단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AI G3를 위한 K-AI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등을 공유했

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09884>
